

## ‘남한판 일심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강석주·김계관 등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들에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들은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있다”라고 응대하였다.

소위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만 당시 우리들은 핵무기 보다 더한 것의 실체에 대해 온 관심이 쏠렸었다. 그것은 바로 ‘일심단결’이었다. ‘수령(장군)-당-군-인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었다.

어느 일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주체들이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항거하여 위기를 극복한 예는 많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사력을 다해 뭔가를 성취하려 한다면 앓되는 일이 없다는 논리는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것인 것 같다.

북한은 ‘김정일 와병설’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 김일성시기에 일심단결했 듯이 ‘김정일 장군’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9·9절 행사에 등장하지 않은 이후로 주민들 간에 그의 신변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비통(비밀통신)’이 돌고 있어서 일심단결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보수언론들까지도 인정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준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외교의 패배이자 북한외교의 ‘승리’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미외교에서 강세를 유지한 이유는 북한에는 야당도, 반대 언론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옳든 그르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론 통일이 독재국가 북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것이다.

요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 또한 혼신을 다해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곤경이 단기간 내에 극복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간의 단합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단합이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자칫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파시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심단결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1997년 말 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했었다. 현재의 상황도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크게 보아 그때 못지않게 어려운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심단결이 필요한 때라는 의미이다.

더구나 북한은 연일 ‘전쟁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의 ‘최고존엄’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방뼈라를 북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우리

는 ‘설마’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최강 미국과의 ‘투쟁’을 통해 ‘테러지원국 고 깎’을 걷어치우는 ‘전과’를 올렸다는 ‘자긍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준 주적’인 남한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일부 뼈라를 보내는 민간단체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전쟁까지 운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비록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는 북한문제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민간단체들만이라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일심단결하여 북한의 ‘불장난’을 막을 도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는 북한의 수령 및 장군에 대한 ‘사이비종교적 맹종’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더불어 대북관 및 대북 정책을 두고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고 대북 지원을 하는 이유도, 반대로 ‘북한길들이기’를 하는 이유도 모두 한반도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심단결해야 함은 물론 ‘군사난’ 방지를 위해서도 일심단결해야 할 때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후 경제·군사 양면에서 이처럼 어려웠던 시기가 또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